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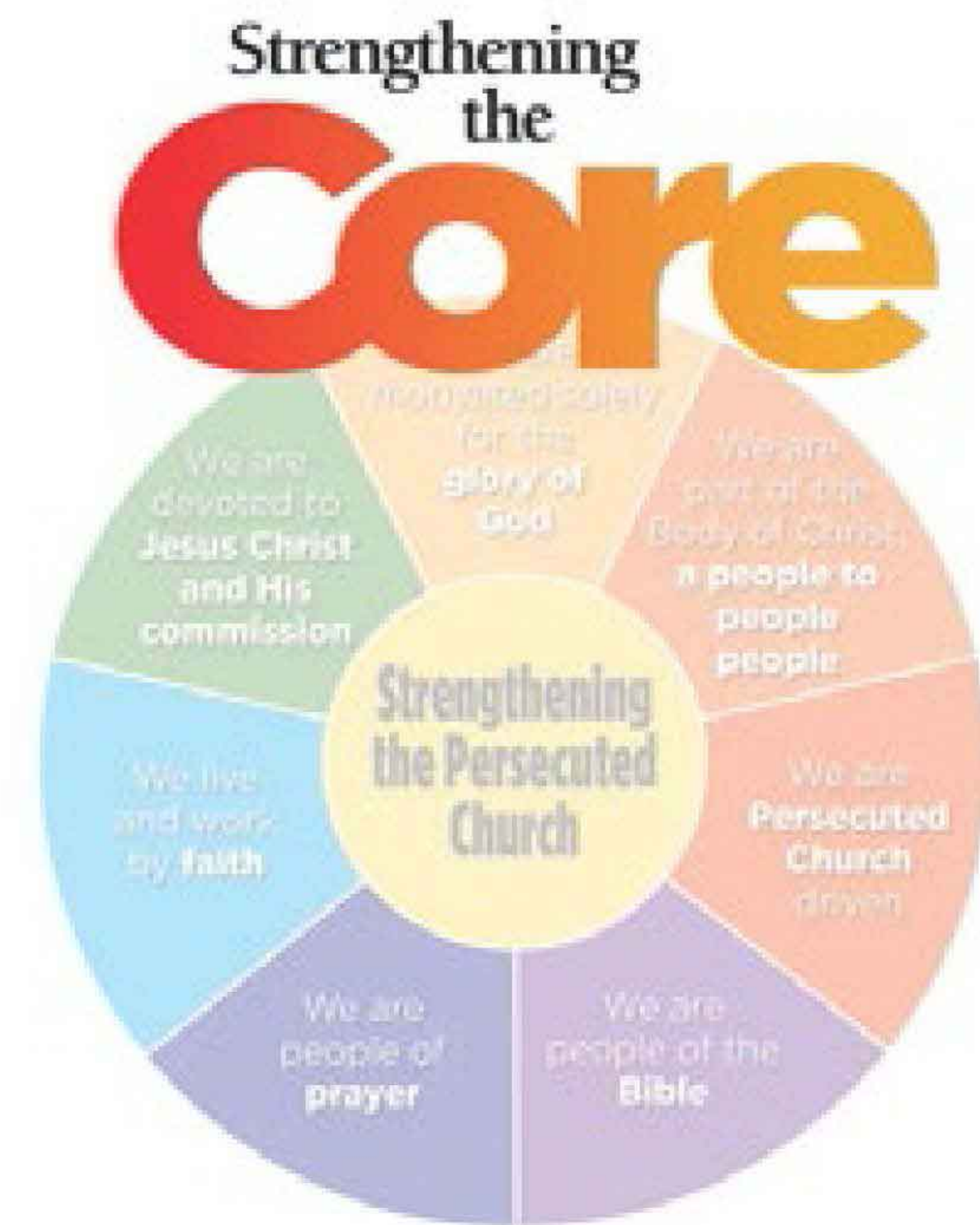
S t r e n g t h e n i n g

# 오픈도어선교회 핵심가치 7

T h e C o r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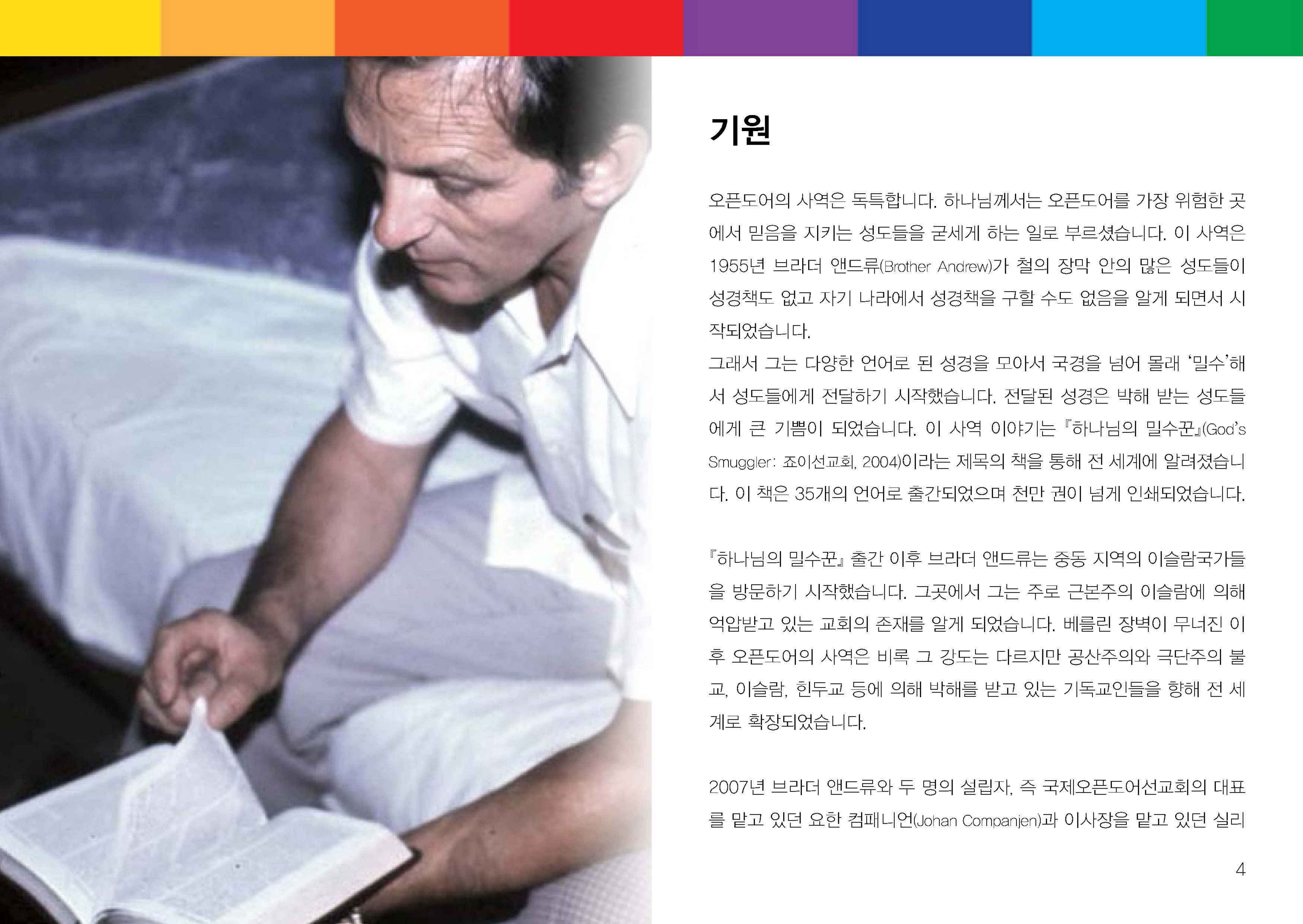


## 오픈도어선교회 핵심 가치 7



Copyright © 2017 by Open Doors International  
P.O. Box 27001 • Santa Ana, CA 92799  
Printed in The Netherlands





## 기원

오픈도어의 사역은 독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픈도어를 가장 위험한 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굳세게 하는 일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역은 1955년 브라더 앤드류(Brother Andrew)가 철의 장막 안의 많은 성도들이 성경책도 없고 자기 나라에서 성경책을 구할 수도 없음을 알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양한 언어로 된 성경을 모아서 국경을 넘어 몰래 ‘밀수’해서 성도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달된 성경은 박해 받는 성도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사역 이야기는 『하나님의 밀수꾼』(God's Smuggler: 죠이선교회, 2004)이라는 제목의 책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이 책은 35개의 언어로 출간되었으며 천만 권이 넘게 인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밀수꾼』 출간 이후 브라더 앤드류는 중동 지역의 이슬람국가들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주로 근본주의 이슬람에 의해 억압받고 있는 교회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오픈도어의 사역은 비록 그 강도는 다르지만 공산주의와 극단주의 불교, 이슬람, 힌두교 등에 의해 박해를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해 전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2007년 브라더 앤드류와 두 명의 설립자, 즉 국제오픈도어선교회의 대표를 맡고 있던 요한 컴패니언(Johan Companjen)과 이사장을 맡고 있던 실리





예츠(Sealy Yates)는 선교회의 리더십을 다음 세대로 이양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브라더 앤드류는 70대의 나이였고 요한과 실리는 60대였습니다. 세 명이 오픈도어의 발전을 위해 리더십으로 봉사한 기간은 총 116년이나 됩니다.

“이 리더들이 어떻게 해야만 20년 뒤에도, 즉 대부분 지역의 기존 사역 리더들이 은퇴한 이후에도 오픈도어가 신실하게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그 가치관을 지켜가도록 할 수 있을까요?”

2008년 2월 4-5일 양일간 실리와 요한은 자문위원 올리버 넘부(Oliver Nyumbu)와 함께 브라더 앤드류의 사무실에서 앤드류를 만났습니다. 그날의 만남에 대해 올리버 넘부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인 순간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와 토론을 통해 이 설립자들이 집중

해야 할 문제는 바로 ‘어떻게 세대교체를 유익한 방향으로 이뤄낼 것인가’라는 것이 명확해 졌습니다..... 이 세 명이 바로 사역의 DNA를 (다음 세대로) 전달해야 할 중요한 사람들인 것이 확실했습니다..... 설립자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충분히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로 사역 초기부터 이 단체의 토대로 세우신 그분의 성품을 다시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임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함께 주님을 성실하게 바라보면서, 이들은 오픈도어의 DNA를 구성하는 하나님의 성품들에 대해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문제는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픈도어의 독특한 DNA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국제 오픈도어선교회 이사회는 설립자들에게 책임을 맡겼습니다. 설립자들에게 지워진 의무는 모든 사역이 “오픈도어가 오픈도어 되게 하는” 이 사역의 정수, 곧 오픈도어의 DNA를 구성하는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립자들은 오픈도어의 DNA를 반영하는 문장들을 “핵심 가치”라는 이름으로 정리했습니다.

몇 달 뒤에 또 다른 설립자 중 한 사람인 데릭 스톤(Deryck Stone)이 이 대화에 합류했습니다. 데릭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목사로서 1971년부터 오픈도어 사역을 섬겼고 국제오픈도어의 이사로 오랫동안 일해왔습니다. 그가 바로 이 사역의 이름인 “오픈도어”(Open Doors)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는 이 사역에서 약 36년간을 리더로 활동했습니다. 2008년 7월 4일, 설립자들은 영국에서 모여 이사회에 제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이 그동안 작업해왔던 오픈도어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검토하고 확정 지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오픈도어의 “핵심 가치”는 우리의 DNA라고도 불립니다. DNA는 모든 살아있는 조직과 기관의 성장과 발전, 기능과 재생산에 필요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기관의 DNA도 이러한 정보,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 존재인지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과 지침”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설립이사장 실리 예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심 가치는 우리가 하는 사역의 모든 활동을 측정하는 기준(the Gold Standard)과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활동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우리의 핵심 가치를 해치는 일이라면, 그 행동과 활동은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이 단체는 더 이상 오랜 역사를 통해 세워져 온 ‘오픈도어’가 아니며 ‘오픈도어’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역에 참여한지 35년이 되는 한 베테랑 현장 지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심 가치는 바로 우리의 사역입니다. 그것은 순종의 DNA를 보존하려는 우리 인간의 노력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고통받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이 핵심 가치는 보존될 것입니다. 핵심 가치는 사역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역 그 자체입니다.”

2016년 국제오픈도어 이사회는 단체 내 모든 이사회와 모든 현장 사역자들, 개발 사무실과 국제오픈도어의 사역자들, 더 나아가 자원봉사자들과 자문위원들에게 이 핵심 가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각 가치들을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설립자들이 의도한 바와 성경적인 토대, 각 가치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오픈도어의 임무와 사역에서의 실질적인 적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설립자들 소개



**브라더 앤드류(Brother Andrew, 설립자):** 오픈도어를 통한 브라더 앤드류의 활동은 이 단체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회피하는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철의 장막과 죽의 장막 뒤에서 펼쳐진 그의 개척자적 사역뿐만 아니라, 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여러 사람과의 친밀한 우정을 통해 그는 교회를 박해하는 위협이 되는 근본주의자들의 리더들과도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 그룹들에게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소수의 서구 리더들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또한 가톨릭교회와 콥틱 정교회 등에서 설교함으로써 기독교 내의 종파의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요한 컴페니언(Johan Companjen, 설립 대표):** 1968년 22살이었던 요한 컴페니언은 그의 고향에서 설교하던 동향 사람 브라더 앤드류의 설교를 듣고 그의 인생을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는 아내 아네케(Anneke)와 함께 베트남으로 가서 사이공이 함락되고 강제로 추방당하기 전까지 3년간 선교사로 섬겼습니다. 그 이후 35년간 요한은 브라더 앤드류와 함께 공산주의의 지배 아래 있는 동유럽과 중국,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를 다니면서 사역했습니다. 그는 1995년에 브라더 앤드류의 역할을 이어받아 대표로 취임하여 2008년까지 섬겼습니다.



**데릭 스톤(Deryck Stone, 설립 목사):** 1970년 데릭은 브라더 앤드류를 만나 박해 받고 고통 받는 전세계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의 설립을 도왔습니다. 그의 나머지 시간은 이 사역이 성공적으로 크게 성장하도록 돕는 일에 헌신되었습니다. 데릭은 오픈도어 사역을 시작한 1971년부터 오픈도어 남아프리카 이사회의 한 부분을 맡아 이사장으로 16년을 봉사했습니다. 그는 수년간 국제오픈도어선교회 이사회의 목양적 역량 부분을 섬겼습니다. 데릭은 2011년 10월 15일 세상을 떠나 주 예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실리 예츠(Sealy Yates, 설립 이사장):** 실리는 1969년부터 법조계 일을 해왔고, 1988년부터는 기독교 작가들의 저작권 대리인 일을 해왔습니다. 1974년 그는 오픈도어 미국지사의 법률 관련 일을 수행했고 그곳 이사회에서 25년을 섬겼습니다. 1978년 그는 박해 받는 교회를 위한 브라더 앤드류의 사역을 각 국가에서 도왔던 열 개의 다른 기관의 연합과 관련된 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단체들은 국제오픈도어라는 이름 아래 한 기관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첫 번째 국제 이사회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1979년에 열렸습니다. 실리는 거기서 이사장으로 섬겨줄 것을 요청 받았고 2008년까지 이사장으로 섬겼습니다.



##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이다

- 현장에 함께 하자.
- 우리는 서로에 대한 인격적인 접촉이 필요하다.
-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자.

오픈도어 내의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핵심 가치 뒷부분의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people to people people)의 뜻을 궁금해합니다. 브라더 앤드류는 1955년 첫 번째 폴란드 여행에서 우리가 박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을 가장 크게 격려하는 건 바로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한 목사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있는 것은 최고의 설교를 열 번 듣는 것보다 더욱 값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동행의 사역**”(Presence ministry)이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가능한 한 우리는 직접 우리의 섬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하고, 팔로 그들을 붙들고, 그들을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 가치 말미에 세 번째 사람(people)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이 뜻은 우리가 단순히 책을 수송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 만나서 가르칠 수 있다면 훈련 비디오를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회 경제적 프로젝트를 위해 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성도들의 파트너가 되어 줍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성육신적 측면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기에 우리도 주님의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슬람에서 개종한 인도네시아 포소(Poso)에 사는 한 성도는 이 핵심 가치의 좋은 예입니다. 이 성도는 성탄절날 한 무슬림에 의해 마체테(machete)

칼로 얼굴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는 여러 개의 치아를 잃었고 얼굴 복원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우리에게 치아가 없는 입으로 밝은 미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다른 사역 단체에서 수술비를 지원해 주기도 했지만, “당신은 나와 함께 병원에 앉아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동유럽으로 성경을 밀수했던 수십 년간 더 안전한 방법으로 교회에 성경을 공급할 방법이 없을까 계속 토의했습니다. 그 중 한 가지 제안은 풍선에 성경 꾸러미를 담아서 띄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디어는 금세 거부되었습니다. 우리가 풍선으로 성경을 띄운 후에 어떻게 그것이 정확히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그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사역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핵심가치는 단순히 현장 사역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설립자들은 국제오픈도어 이사회를 비롯한 각 지부의 이사회에게 이 가치에 대한 한 가지 적용법을 설명했습니다. :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이다”의 의미는

-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 우리는 서로를 보살피고
-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 우리 이사회 중 한 부분이 고통받으면, 모든 이사회의 지체가 고통받으며





■ 우리는 서로 존중합니다.

그러므로

- 한 명의 이사가 발언을 하면 모든 사람이 경청합니다.
-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꾸준히 기도합니다.
- 우리는 서로를 향한 다리를 놓아 정기적으로 꾸준히 교제합니다.
- 사랑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 우리는 이사회를 위한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집  
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오픈도어 사역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는 우리와 후원자와의 관계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핵심 가치는 우리가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에 대한 핵심 정수를 품고 있습니다. 이 가치는 현장을 가지 못하는 지부의 사역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가치는 또한 각 리더들이 자기 사역자들과 함께 일하는 팀원들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핵심 가치와 관련해서 2가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따르면 우리 중 하나가 고통받으면 온 지체가 함께 아파하고 우리 중 한 지체가 존귀히 여김을 받을 때 온 몸이 함께 즐거워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번째 사실을 깨우쳐줍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사람에게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 요청을 할 때 개개인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가능

하면 우리의 인쇄물에 그 사람의 사진을 첨부해서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적어도 15차례 이상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59회나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화평해야 하고(마 9:50),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롬 14:13), 서로 비판하지 말고(롬 14:13), 서로 섬기며(갈 5:13),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엡 4:32), 서로 용서하고(엡 4:32),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엡 5:19),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빌 2:3),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딤후 4:18).

이 구절들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마치 기계의 톱니바퀴와 같이 생각해서는 안되고, 어떤 상하 관계 속에 서로 비교하여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사람으로 구분을 지어도 안됩니다. 함께 일하는 다른 사역자들을 학대하거나 모욕할 수 있는 권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곤란한 대화를 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서로 관계성 속에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치 못할 오해는 종종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오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해야 하고, 서로 빨리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최고의 것을 해주어야 합니다.

어느 국제오픈도어 사역자가 이 핵심 가치를 고도의 기술이 발달된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는 이메일이나 소셜 미디어와 같은 인간미 없는 소통 방법에 우리가 얼마나 크게 의존하는지에 대해 놀랐습니다. 물론 그 소통 도구들은 모임 시간을 공지하는 등 일상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렇지만 이를 통해 복잡한 커뮤니케이션을, 특히 여러 언어와 문화권의 사람과 나누고자 한다면 많은 오해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여러 번 다시 읽고 심지어 다음날까지 다시 검토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이메일이 받은 사람이 어떤 어조와 느낌으로 반응할지 고민합니다. 이럴 때 웃는 얼굴 같은 이모티콘을 사용한다면 정확한 감정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발달된 기술은 우리에게 놀라운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제공합니다. 오픈도어는 Skype for business/Link2U 및 이와 비슷한 도구들을 이용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안전한 방식으로 모임을 가집니다. 더 구체적인 메시지들을 보낼 때에도 각 사역자들에게 장문의 이메일을 써서 보내기보다는

Link2U에 그 사람이 접속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접속해 있다면 화상회의를 통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목소리를 듣고 또 몸의 동작들까지 확인하면서 생산적인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 우리는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긴다

- 이 핵심 가치는 우리 사역을 다른 사역들과 구분 짓는 핵심 요소이다.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가능한 어디든지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필요를 도우며 최선을 다해 섬긴다.

1955년 브라더 앤드류는 폴란드에서 공산당에 의해 열린 세계 청년 회의 (World Youth Congress)에 대한 안내 책자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꼭 가야 한다는 부담을 가졌고 폴란드에 가서 참여하기로 했던 공식 행사를 빠져나와 그 지역의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박해 받는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는 성경에 갈급한 성도들이 있었

습니다. 같은 여행 중에 그는 젊은 사회주의자 청년들이 바르샤바 거리를 행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현재까지 오픈도어의 사역을 규정하는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계 3:2). 이곳이 바로 핍박 받는 교회를 위해 일하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된 곳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브라더 앤드류는 감옥에 2년간 갇혀 있었던 동유럽의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앤드류는 어느 한 모임에서 우연히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그곳으로 오신 그 목사님과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인용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는 앤드류의 눈을 응시하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네덜란드에서는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나요?” 앤드류는 그저 이렇게 대답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단순히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박해 받는 교회가 우리를 향해 이야기하게 해야 하고, 그들을 도우려는 우리의 섬김을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핍박으로 인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자유로운 교회들에게 기도와 믿음 그리고 성경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긴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 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 5:10-12).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요 15:18-20 전반부).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 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마 24:9-13).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일하는 동기입니다. 바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성도들을 굳세게 함으로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고,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 기관의 설립 대표 요한 컴페니언은 이 핵심 가치와 관련해서 2가지 사실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박해 받는 교회가 우리의 사역을 지도하고 사역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미 정해진 프로그램을 현지 교회에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분들의 필요와 요청을 듣고 기도 가운데 그 요청에 맞는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는 더 많은 모금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프로젝트를 추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핍박 받는 교회를 위한 주님의 요청에 반응하여 일을 결정하며, 주님께서 그 일에 필요한 재정을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핵심 가치의 적용점 중 하나는 모든 국제 및 각 지역 이사들이 박해 받고 있는 현지 교회에 개인적으로 꼭 방문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사회에서 예산과 정책, 그리고 전략에 대한 적절한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들 외에도 박해 받는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글을 쓰는 사역자들도 꼭 현장의 박해 받는 교회를 방문하고 주기적으로 현장의 실질적인 필요와 세계 전역에 위치한 우리 연구팀의 연구를 통해 확인된 필요에 대해 자신이 속한 팀 및 이사회와 소통해야 합니다.

설립 목회자 데릭 스톤은 우리 사역에 대하여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약성경은 박해 받는 성도들에 의해 박해 한가운데서 쓰여졌습니다. 신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는 사도나 목사가 아닌 사람들, 예를 들어





에바브로디도, 스테반, 마가 요한, 오네시모 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고난 중에 있는 교회와 자유로운 교회를 왕래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교회들에게 이 사람들을 존중하라고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이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에서 그 일꾼 중 한 명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바울은 “위험”(risk)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개역개정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으로 번역). 이 단어는 도박에 사용하는 단어로서 자신의 모든 판돈을 걸고 주사위를 굴리는 것을 뜻합



니다. 교회에는 항상 이렇게 자신의 전부를 아끼지 않고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인상깊습니다.”

하지만 박해 받는 교회를 위한 열정은 위험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섬긴다”(driven)라는 단어는 때로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사역의 개척자들을 돌아볼 때 그들의 헌신과 성경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사역을 위해 밤 늦도록 일하고 몇 날, 몇 주, 때로는 몇 달 동안 집을 떠나서 지냈던 수고를 보며 절로 존경을 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수고와 헌신이 바로 “섬긴다”(driven: ~주도의, ~중심의)의 의미입니까? 우리는 거룩한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의 가족과 나의 건강 등을 희생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설립자들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섬긴다”(driven)이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활동이든 언제나 그 박해 받는 교회의 리더와 구성원들의 의견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우리가 지레 짐작하여 이야기하는 그분들이 필요로 할 만한 것들에 기반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오픈도어에 속한 사람들은 핵심 가치의 우선 순위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습니다(물론 그렇기 때문에 오픈도어의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섬긴다”(driven)라는 단어는 잘못 이해될 수 있습니다. 때로 사역자들은 적절한 휴식을 가지는 데 실패하여 탈진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사역의 이름으로 무시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 가족과 개인의 안녕, 그리고 박해 가운데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의 압도적인 필요와 요청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섬긴다”(driven)라는 단어의 뜻은 박해 받는 교회로부터 우리 사역의 동기를



부여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달된 동기는 우리의 열정에 불을 지피며 우리를 집중시킵니다. 하지만 이 동기가 우리의 가족을 희생시키거나 불균형적인 삶을 사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우리가 마무리하고 끝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사역의 현실입니다.

박해 받는 교회의 필요는 매우 큼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의 건강을 위해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의지하고 있는 가족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브라더 앤드류가 자주 인용했던 구절이 있습니다.

“필요가 부르심은 아니다. 우리가 충족시킬 수 없는 더 큰 필요가 항상 존재한다.”

우리는 박해 받는 교회를 위한 연구와 조사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기독교박해지수(WWL)를 발전시켜서 어떤 교회가 지금 큰 압력과 억압 가운데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 국가의 교회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들의 필요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필요를 다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픈도어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발견하고자 더욱 기도에 힘쓰고 성경을 탐독하고 주님께 헌신하며 믿음으로 생활하고 사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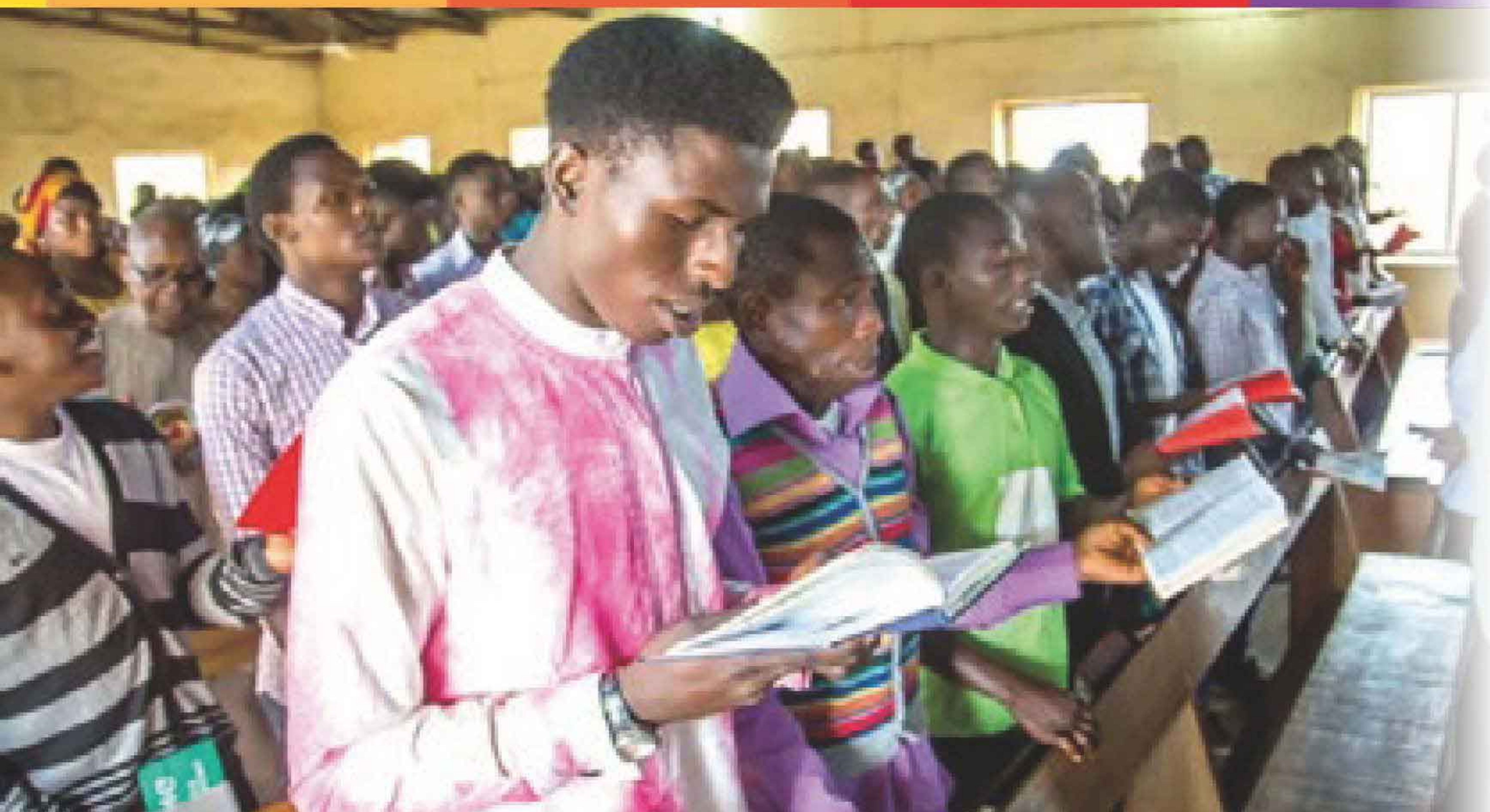
수년간 우리가 도달했던 한 가지 결론은 오픈도어는 인도적 지원 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수년 전에 신학교에 다닐 수 없는 아프리카의 목회자들을 훈련시킬 때 우리는 그 목사님들이 기근으로 너무나 굶주려서 도저히 공부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

들께 음식을 공급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길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우리는 최초의 인도적 지원 사역인 “자비와 자애 프로젝트”(Project Loving Kindness)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 국가의 기근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인도적 지원 단체들은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그 지역의 필요를 돕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음식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우리는 때때로 자연 재해나 박해의 위협으로 교회의 생존이 위협받을 때 그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 받는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몸의 다른 지체를 도움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다

—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이 되자.

우리의 사역은 긴급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철의 장막 안의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브라더 앤드류는 이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성경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부나 권력이나 권위라도 누군가에게서 이 권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브라더 앤드류는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동유럽과 구 소련으로 출발했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그 국가들의 법을 어기더라도 현지 언어로 된 성경을 국경을 넘어 밀수해서 성경을 구할 방법이 전혀 없

는 기독교인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왜? 무엇이 브라더 앤드류와 그 동료들을 그런 위험한 일로 이끈 것일까요?

브라더 앤드류는 성경이 가진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네덜란드의 군인으로 인도네시아로 파병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가 준 선물이었습니다. 성경은 전쟁에서 입은 부상으로 인해 병원에 누워있을 때 그의 마음을 열어준 열쇠였습니다. 성경은 그가 마을 골목과 초콜릿 공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더 공부하기 위해 스코틀랜드의 WEC (World Evangelistic Crusade) 선교회 대학에 다녔습니다.

전 세계로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브라더 앤드류의 사역에 참여하게 되자, 그는 성경을 사용해서 그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지식만 전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책과 같다.”

앤드류는 종종 여러 가지 창조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의 손에 쥐어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 깊이 새겨져야 합니다.

우리 오픈도어에 속한 사람들은 단지 말씀을 읽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성경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동료 사역자들에게,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박해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 앞에서 살아있는 성경으로 살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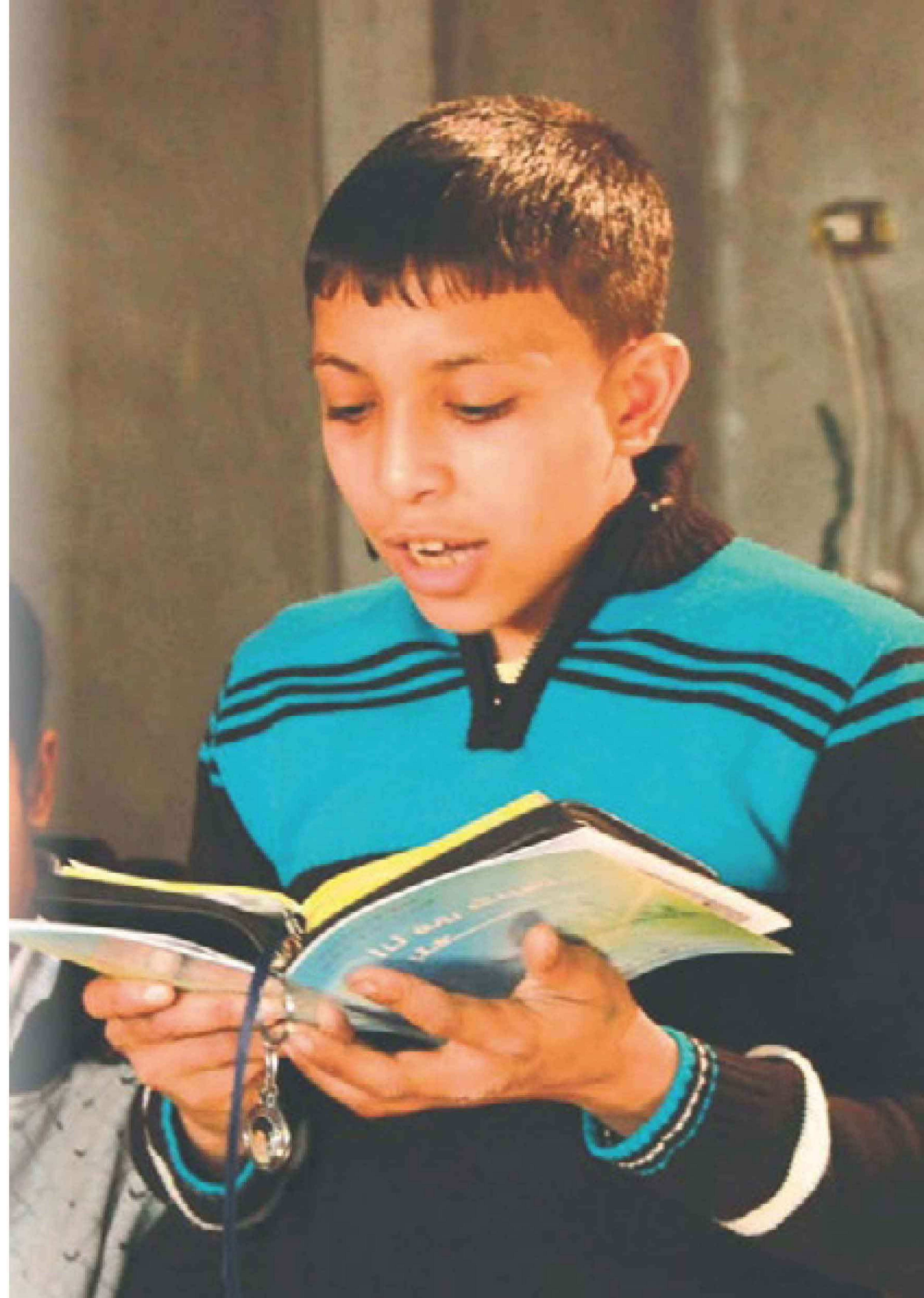


우리는 신약과 구약으로 이루어진 성경이 영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박해 받는 교회를 굳세게 하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지도하고 안내하는, 우리의 여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갈망하는 사역이며, 이를 위해 성경에 진지하게 접근합니다.

한번은 브라더 앤드류가 첫 출근을 한 사무실 사역자에게 “아침에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당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 사역자는 아침에 성경 읽는 것을 즐거워하던 사람이었기에 그 물음에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팀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 하나는 함께 또는 개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역자들과 이사회 임원들이 가능하면 매일 성경을 읽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읽은 후에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이야말로 이 핵심 가치가 사역자들과 이사회 임원들, 또 자원봉사자들에게 도전하는 요점입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6-17절을 상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딤후 3:16-17).







##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 기도는 우리에게 산소와 같다.
-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다.

사역이 시작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기도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많은 거점들이 기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기도실 한쪽 벽에 세계지도가 붙어 있어서 사람들이 나라들을 보고 기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사역자들과 그 배우자들이 한 달에 두번씩 월요일 밤에 모여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훈계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 5:17).

어떤 이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산소와 같습니다.”

브라더 앤드류는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라고 이야기 해왔습니다. “기도에 대한 바른 개념은 기도를 우리 허파에 있는 숨이나 심장에 있는 피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오스왈드 챔버스(Oswald Chambers)가 쓴 것처럼 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께 나누고 싶어하는 이야기보다 더욱 중요한 이야기와 정보를 가지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



니다. 그분은 우리의 갈망을 듣고자 하시지만, 또한 우리가 그분께 귀 기울이고 듣기를 바라십니다.

80년대에 오픈도어에서 일했던 코르 뷰크마(Cor Beukema)는 개인으로서 는 아마 역사상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성경을 밀수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수년간 그는 2천 권에서 2천 5백 권의 성경을 숨길 수 있는 매우 큰 트럭 을 끌고 동유럽 국경을 넘나들었습니다. 10여년 동안 그는 거의 매년마다 평균 40번 가량을 왕래했습니다. 국경을 넘기 전에, 그는 항상 네덜란드 의 소속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앞으로 48시간 동안 계속된 기도로서 중보 해주길 요청했습니다. 그는 한번도 잡히지 않았고,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 에도 불구하고 1건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용사였고 왕이었습니다. 그는 성벽을 뛰어넘고(삼하 22:30) 발이 미끄러지 지 않게(삼하 22:37) 해달라는 등 매우 실질적인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했 습니다. 그는 또한 “블레셋을 치는”(삼상 23:2) 것과 같은 중요한 결정들에 대해서도 자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일과 큰 일 모두 기도 로 감당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수년간 매주 월요일 저녁마다 수백여 명이 함께 참여하는 기도회를 인도하신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은 서구에서 온 한 방문객이 그분께 물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이집트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습 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저희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그분은 만약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한 다면 그 기도는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은 아마도 우리의 안전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은 우 리가 겪는 박해가 끝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집트를 위해 기도할 때 성도들이 복음 을 더욱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는 수백만의 무슬림들 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많은 무슬림들이 그리스도 게 나아올 때 피할 수 없는 박해가 올 것을 알기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항 상 신실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대가로 요구할지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성경을 통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그들의 기도의 책으로 활용합니다. 대부분의 시편은 박해 받는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시편 79편에서 영감을 받아 중동과 아프리카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알사바브, ISIS, 보코하람 등 모든 테러 집단들을 보소서. 그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목회자들을 살해하고 우리의 집을 파괴하여 잔해만 남깁니다. 그들이 당신의 종들을 죽이고 그 시신을 해안가에 썩게 내버려 두며 이 장면을 유튜브로 송출하여 자신들의 자랑거리인 것마냥 전 세계에 드러냅니다. 당신 백성의 피가 강같이 흐르고 우리는 그 순교자를 위해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르지 못합니다. 거기에 우리는 그들이 내뿜는 증오의 말들을 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중동에 기독교를 말살하고자 맹세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와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강요합니다. 주여 언제까지 주의 신부된 교회를 심각한 증오 가운데 두시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 핍박자들을 벌하실 때입니다. 이 테러리스트들은 그들의 명예를 위해 이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오소서. 그들의 눈을 여셔서 그들이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전 세계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당신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우리는 세계기독교박해순위(WWL)에 등재된 가장 박해가 심한 50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작은 소그룹으로 떠나는 기도 여행을 조직하기도 합니다.

중국으로 기도여행을 떠났던 한 그룹은 카자흐스탄 국경 부근으로 가기 위해 5시간 버스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기도하기 위해 그렇게 긴 여행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 지역의 선교사가 버스로 가다 왔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은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자신이 교회로부터 잊혀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여행자들은 자신들이 왜 그곳까지 와야 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지지해주는 기도팀이 있습니까?

실리 예츠가 한번은 새롭게 국제오픈도어의 일원이 된 한 사람에게 하루 속히 기도 팀을 꾸리라고 도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당신의 기도팀의 명단에 첫 번째로 넣어 주십시오” 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날 그의 이메일에는 300명의 기도자의 명단이 있습니다. 그는 그들의 기도 없이는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를 시행하거나 지역을 여행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독교 박해 지수(WWL) 상에 있는 주요 박해 국가들에 대한 정보도 업데이트하여 기도자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 우리는 믿음으로 살며 사역한다

- 우리는 위험을 기꺼이 감당하는 조직이다.
- 우리는 우리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한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밀수꾼』을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책이 가져온 가장 중요한 효과는 독자들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활기찬 믿음의 생활을 경험하고 싶어했고 그런 점에서 사람들은 이 사역에 매력을 느끼고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오픈도어 역사에서 가장 잘 알려진 믿음의 사례는 바로 “진주 작전”입니다. 1981년 어느 날 밤 1백만 권의 성경이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선원들은 실제적인 위협을 받고 있었고, 이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비용은 기관의 1년치 예산과 맞먹는 큰 돈이었습니다. 국제오픈도어 이사회와 사역 리더들은 이 프로젝트가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작전이 수행되는 모든 부분에 관여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실패했을 것이고, 결국 그것이 우리 단체의 마지막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믿음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사례 중 대부분은 진주 작전같이 드라마틱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현장에서 진행되는 수천 개의 프로젝트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허가가 나지 않는 국가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단체와 매일 위험한 상황을 무릅쓰는 사역자들의 안전을 지켜주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위험이 없는 곳에는 믿음도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래더 앤드류는 믿음에 관한 최고의 구절인 히브리서의 말씀을 종종 인용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히 11:1). 이 말씀을 이어서 믿음의 용사들의 명단이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한”(8절) 것에 주목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교회를 향한 사명을 순종으로 감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을 이 구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앤드류는 특별히 이 장에 묘사된 한 단어를 이야기했습니다. 36절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어떤 이들”에 대해서 앤드류는 어떻게 그들의 믿음이 우리의 유익이 되었는지를 주목하라고 언급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사역과 연결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전 세계에 이름을 모르는 많은 “어떤 이들”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36절), 37절에 기록된 것과는 다르지만 총과 마체테(칼의 일종—역자 주)와 폭탄에 의해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38절)고 증언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칭송 받을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사람들은 브라더 앤드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해왔던 일을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된다면, 혹시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이 있나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마 더 큰 위험을 감수할 것입니다.” 참 도전이 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브라더 앤드류는 우리가 부주의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보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역한다면 우리의 결정과 행동에 그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수년 전에 이루어진 믿음의 결정 하나는 바로 우리 조직은 사역자들에게 자신의 재정적 필요를 위해 스스로 모금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봉급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원하시는 데 실패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사역 가운데 무엇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일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3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우리의 예산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산을 일반적인 방법과는 반대로 세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박해 받는 교회의 필요에 대해 먼저 소통하고 그 내용을 예산안 작성에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합니다. 그 후에 다른 지원 항목들이 다뤄집니다. 수년 동안 오픈도어는 비록 충분한 자금이 모일 것이라는 확신이 없을 때에도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개발사무실의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선교 현장에서 중동 지역의 심한 박해로부터 성도들을 피신시키는 일과 관련된 긴급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수백만 달러 상당의 예산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개발사무실의 대표는 이 긴급한 필요를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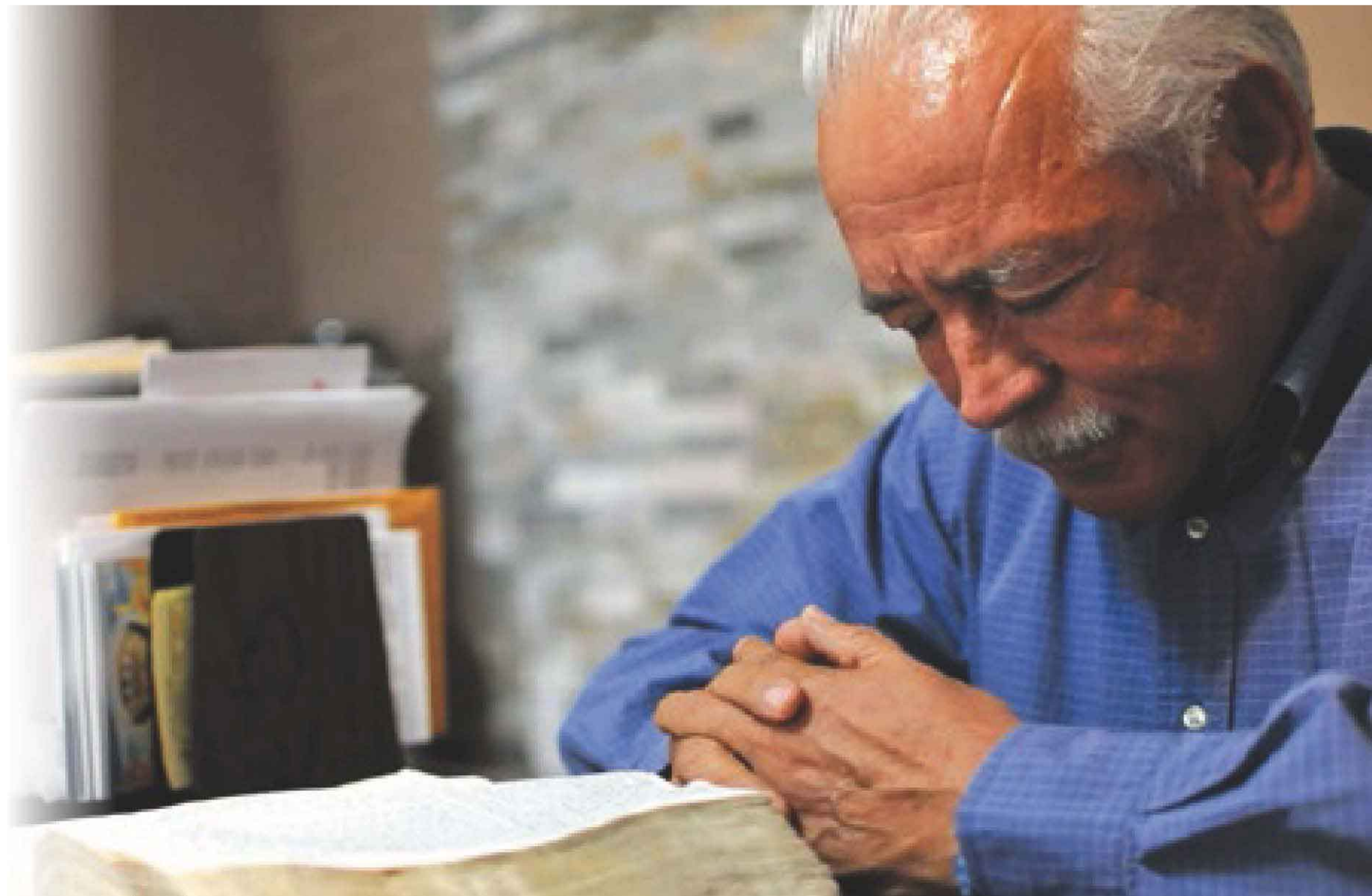
기 지역의 리더십 팀에 알렸습니다. 문제는 이 필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보강되고 몇몇 중요한 자리들이 채워져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팀은 지금 하고 있는 일 이상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자신들에게 들어온 요청을 거절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팀의 리더는 하나님께서 이 긴급한 요청에 우리가 응답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팀원들도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걷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기존에 하던 것보다 더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당신이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상황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여러분에게 한 달에 한 번 있는 금식 기도의 날에 참여하기를 요청합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것입니다.”

그 사역자는 그 제안에 동의하고 열정적으로 동참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후원금이 개발사 무실로부터 송금되었습니다. 그 해가 끝날 무렵 그들은 자신들이 기도했던 것의 3배나 많은 재정이 채워진 것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선교 현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007년 어느 지역의 개발사무실은 재정적으로 흑자가 났고 다음 해 재정 수입 전망도 매우 밝았습니다. 현장 사무실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수백만 달러의 돈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그 국가 디렉터는 이런 요청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사역 대상 국가의 교회로 더 많은 후원이 들어올 때 그 교회가

오히려 해를 입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사역 국가의 경제는 성장하고 있었고 교회도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교회들은 외부의 후원에 의지하지 않는 것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국가 디렉터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녀가 담당한 국가에 대한 추가적인 후원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이 되어서 경제 공황이 발생함에 따라 예상되었던 추가 재정 확보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디렉터는 말합니다. “저는 매우 행복합니다. 이 일이 저의 부담을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그 국가의 박해 받는 교회가 더 많은 돈 덕분에 강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우리의 핵심가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는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긴다”는 가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상명령에 헌신한다

- 우리는 어떤 종교나 신조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헌신된 사람들이다.
- 우리는 그분의 지상 명령에 순종한다.
- 우리는 그분의 제자이며, 그분의 학생이 아니다.

왜 우리는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를 굳세게 하는 일을 합니까?

그 이유는 비록 교회가 심한 압박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견디고 예수님께서 그 국가들 가운데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완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마 28:18-19).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을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픈도어선교회의 사역은 박해 받



는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의 지상명령을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 맞는 최선의 모습으로 수행하도록 도움으로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제자란 무엇입니까?

오픈도어의 한 베테랑 리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도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 일생의 과정이다.”



어느 국가 사역 책임자는 제자 훈련 코스를 소개하는 것이 제자를 세우는 일이 아님을 발견했습니다. 그 리더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 국가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훈련 프로그램을 재검토했습니다. 훈련생들이 제자로 변화해가기보다는 그저 지식만 늘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선교 단체는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 교회개척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를 파송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박해 받는 교회의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는 지원 단체도 아닙니다. 우리의 사역은 기독교인들이 공격받는 국가와 민족의 교회와 함께 하는 동행의 사역(Presence ministry)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우리는 박해 지역 교회들이 자신들이 속한 공

동체에서 주님의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그들에게 부족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그 교회와 성도들은 복음전도자가 되고 교회개척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찾고 만나고 섬길 때 그들은 그들의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행 1:8)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느 거대 무슬림 국가에서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2001년 일어난 911 테러 이후 모든 선교 단체들이 그 나라에서 추방당했고 오직 난민촌에서 활동하는 현지 교회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남아있던 현지 교회에서 진행된 난민촌 사역은 상당한 숫자의 회심자들을 배출했고 이들은 자신의 고향인 이웃 나라로 돌아가 가정 교회를 형성했습니다. 그 이웃 나라에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는 그 토착 현지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입니다.

오픈도어는 성도들을 박해에서 구출하거나 그들을 자기의 가정과 자기가 속한 문화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역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역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굳세게 해서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서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라고 해서 주님의 지상명령으로부터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서구권의 선교사를 선교 지역으로 파송하는 것은 이미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훈련시켜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더 큰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박해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 역시 그들이 속한 영역에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나 나이지리아 등의 박해 받는 교회에서 파송 받은 선교사들





이 나오고 있고, 이들 중 일부는 유럽이나 미국으로 파송을 받기도 합니다. 오픈도어 안에서 우리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장소에서 어떻게 담대하게 성령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일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적대적인 정치적 지도자들이나 종교 극단주의자들에게 나아가는 것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브라더 앤드류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원수와 대적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 수 없습니다. 오직 친구만 그리스도께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우리의 박해자들과도 친구가 되도록 시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유로운 가운데서 복음에 대해 반응하고 자신의 태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박해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 어떤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그 지역 교회의 몫입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 이 결정 과정이 진행되던지 간에 건강한 교회는 비록 박해가 뒤따를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닉 립켄(Nik Ripken)은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를 줄이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사명은 오히려 박해 받는 교회가 그들이 속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증인이 되도록 격려하고 굳세게 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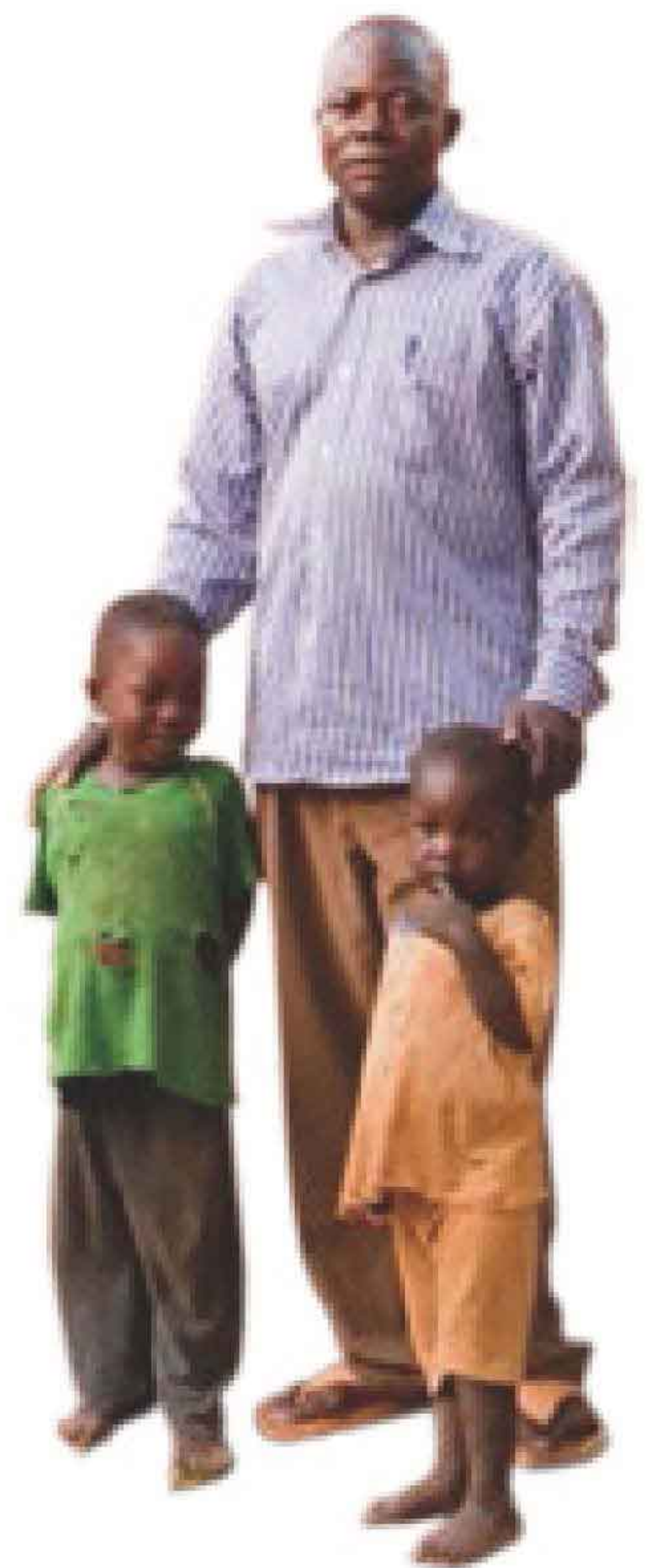
–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의 능력 되시기에 오직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영화 제작사들은 『하나님의 밀수꾼』이나 『진주 작전』에 대한 영화 판권을 요청하고자 종종 우리 선교회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선교회 회장이었던 요한 컴페니언은 모든 제안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영화를 만든다면 하나님이 아닌 오픈도어가 신용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박해 받는 교회를 돕는 우리 사역의 규모나 우리가 해온 일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오픈도어에서 섬기고 있는 모든 이들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든지 개인적 영광을 위해서, 또는 자신의 경력을 위해서 등 다른 동기로 사역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나에게 맞는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략을 지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행하실 것입니다.

선교 현장의 베테랑 리더 중 한 분은 보안 때문에 우리 기관의 이름을 대상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눌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교회 지도자가 그분께 누구에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물었을 때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나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대답을 들을 때 종종 미소를 짓기도 합니다. 다른 사역단체들 중에는 자기 기관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열심을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정보를 숨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단체를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성경 구절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힘쓰라고 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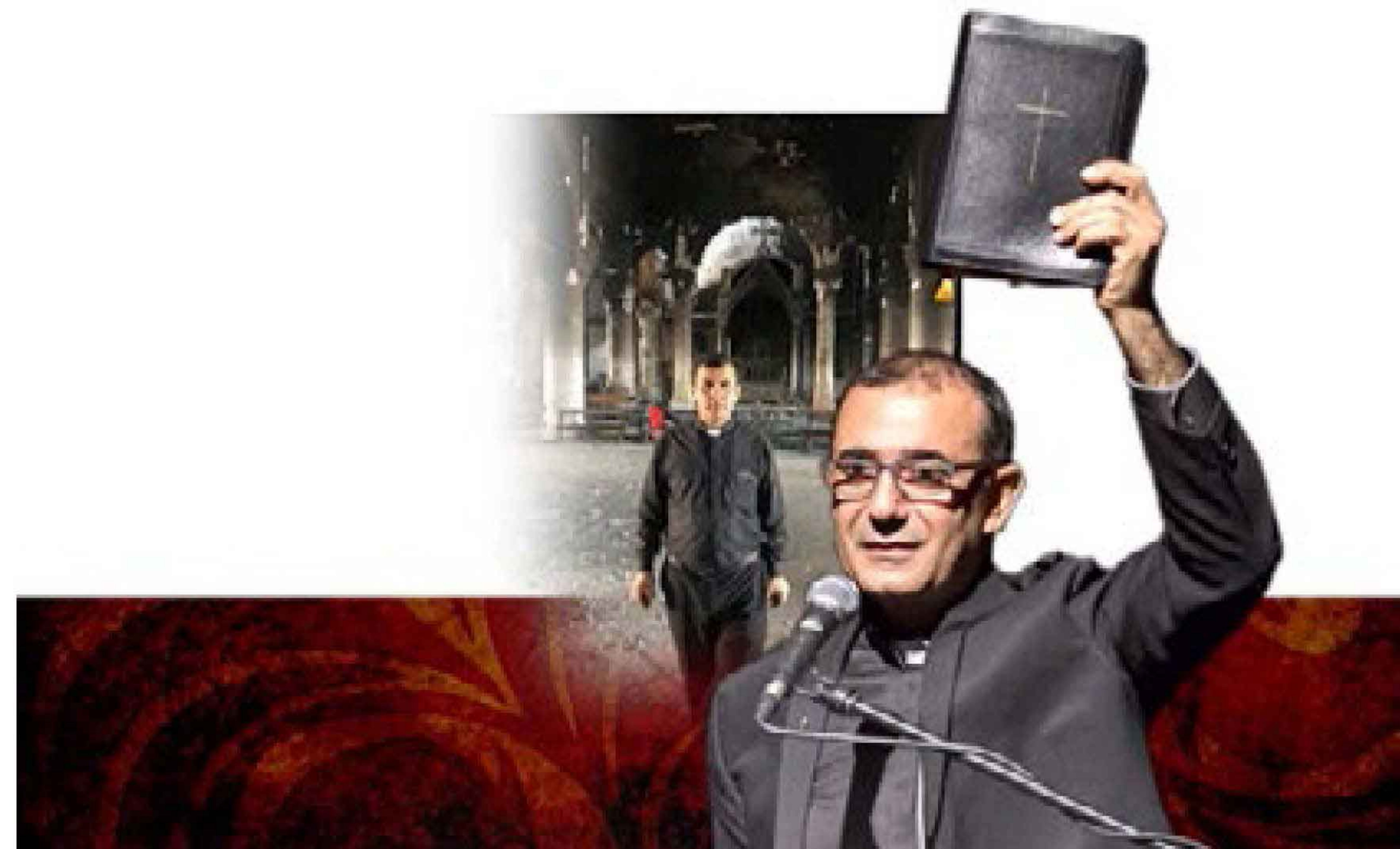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31).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엡 3:20-21).

그 다음으로 핵심 가치 중에 살펴볼 단어는 바로 “오직”(solely)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갈망하는 동시에 우리의 더 많은 수입, 더욱 영향력 있는 사역,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 전략적인 우선순위의 달성,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성취를 통해 좋은 평판을 얻는 것 등을 원한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적인 동기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던 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절대적인 사실을 희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들이나 지부 대표들은 재정 비율이나 주요 성과 지표(KPI), 대차대조표, 투자 수익률(ROIs)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박해 받는 교회를 위해 사역한 사역의 성과와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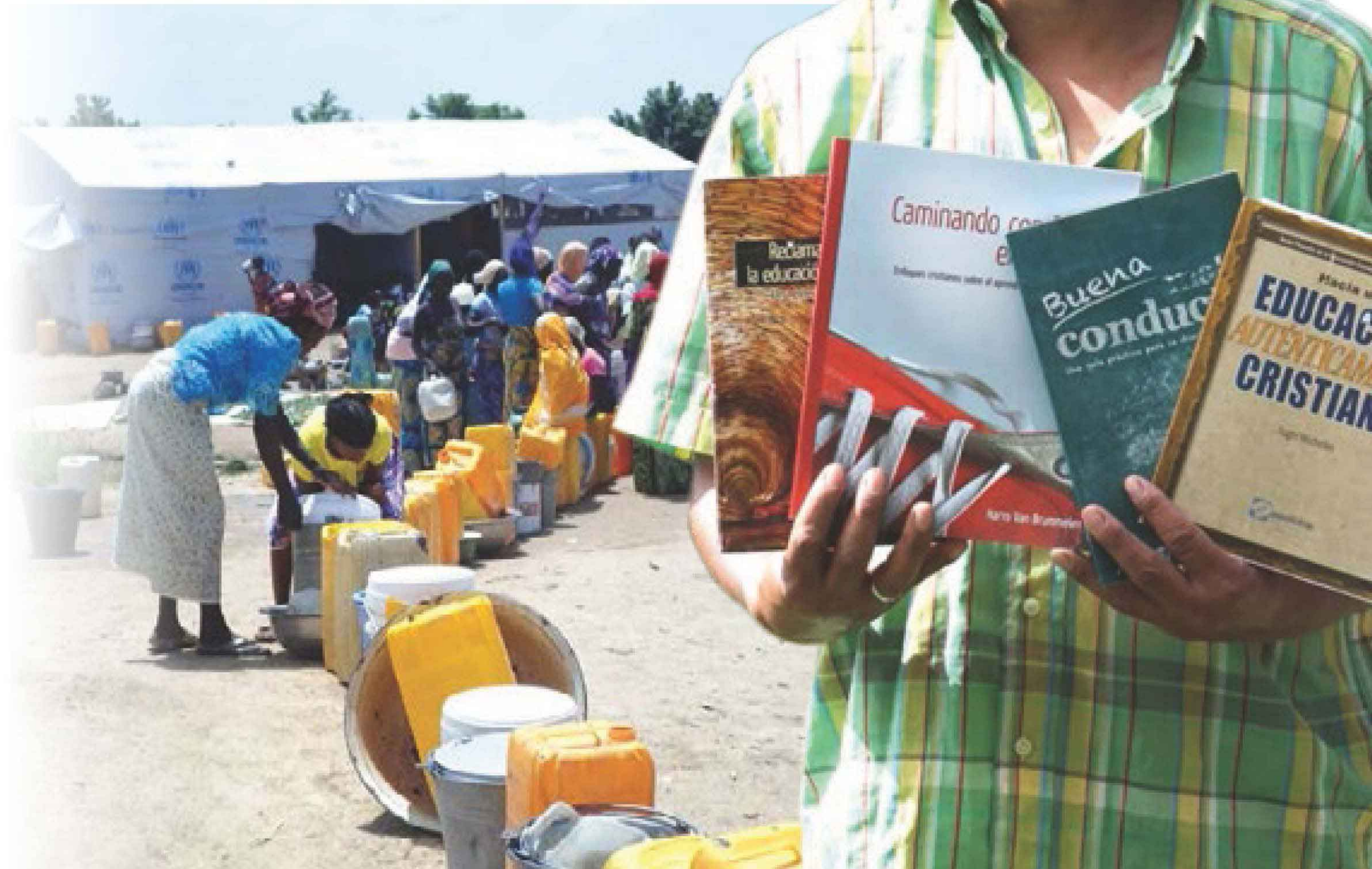




력, 또는 사역자들의 탈진과 이직 등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확인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 또는 우리 기관을 위해 일했는지에 대해 좀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핵심 가치들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현지 교회 지도자들에게 기관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했던 베테랑 현장 사역자의 일화로 돌아가보면, 우리는 주기적으로 후원자들에게 이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심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례가 모순처럼 보이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난한 중에서도 기쁘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마케도니아 성도들의 너그러움을 자랑했습니다 (고후 8-9장).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너그러운 마음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후원자 중의 상당수는 우리의 활동 및 다른 사역을 위해 희생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원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꺼이 그 몫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후원자의 동기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과 하나님께서 감동하게 하심으로 후원을 한 후원자에게 감사하는 것이 모순되 보이지는 않습니다.









## 결론

브라더 앤드류는 자신은 어떤 기관을 시작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저는 오픈도어가 어떤 모습이 될지 알았다면 아마 그 한걸음도 떼지 못했을 겁니다.”

앤드류는 이 말이 지금 오픈도어가 상당히 큰 기관이 된 것에 대한 유감을 표하는 것은 아니라고 재빨리 덧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또는 누군가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는 그분의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그 계획과 목적을 첫날부터 다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는 당신을 정신적으로 믿음으로 준비시키십니다.



당신은 주어진 업무 안에서 성장합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친구와 조언자와 중보기도자들을 더해 주십니다. 당신이 주어진 소규모의 사람들에게 신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망을 더 확장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때 당신이 확장될 관계망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신부입니다. 신부가 고통 당할 때, 그 신부를 보살피는 것은 신랑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브라더 앤드류의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픈도어에 전세계의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특별한 사역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네 명의 설립자들이 이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사역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역은 어떤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국제오픈도어 이사회는 7가지 핵심가치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전략과 의사결정, 그리고 자원 사용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이 핵심 가치를 평가하거나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핵심 가치가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올바른 길, 즉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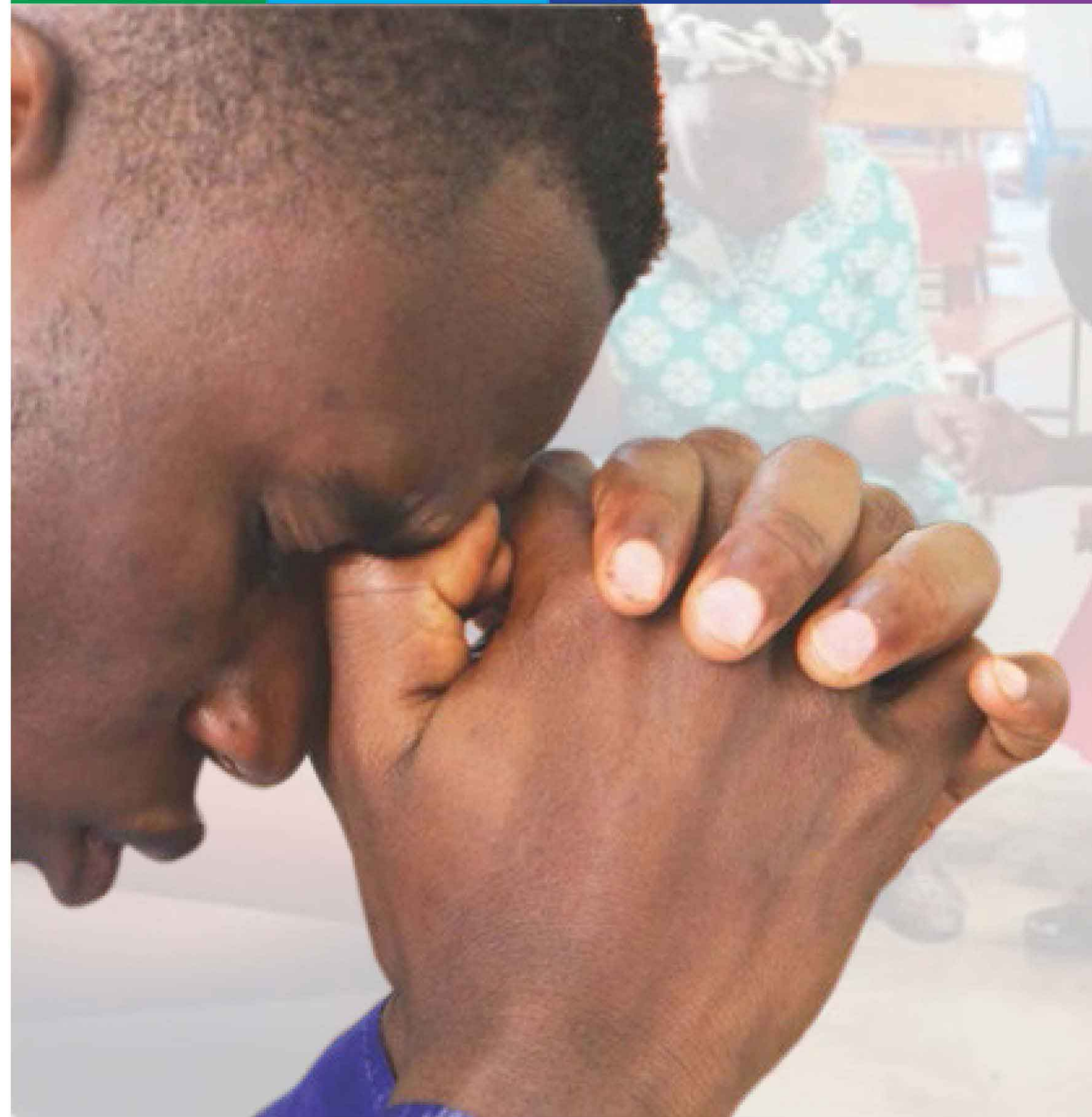
이것이 이 책자가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 1) 핵심 가치들의 의미를 여러 언어와 문화권을 넘어서 일관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 2) 사역자들과 이사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이 핵심가치들을 자신들의 특수한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지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계속된 배움의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단체 안에서 어떻게 핵심 가치를 살아낼 것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브라더 앤드류와 이 사역의 초기 개척자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하면서, 동시에 현장에서, 이사회에서, 국제 본부에서, 그리고 개발사무실에서 각각의 맡겨진 임무와 책임의 다양성 가운데 핵심 가치를 적용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이야기들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에 의해 60여년간 쓰여진 놀라운 이야기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25년 혹은 50년 뒤에 오픈도어를 어디로 이끌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우리의 DNA인 7가지 핵심 가치에 충실한 가운데 때마다 한 걸음씩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비매품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9길 10, 영성빌딩 4층  
전화번호: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mailto: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http://www.opendoors.or.kr)